

목포항 2030년까지 8493억 투입...서남권 경제중심 항만개발

목포 내항, 화물-신항·수산업-북항으로 구역화 여객·관광·역사·문화·레저 거점 항만 기능 수행

오는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전남 목포항이 권역별로 특화된 혁신적·현대적 기능을 갖춘 서남권 경제중심 항만으로 개발된다.

목포 내항의 기능 중 화물은 신항, 수산업은 북항으로 구역화되고, 내항은 여객과 관광, 역사·문화·레저 거점 항만 기능을 수행한다.

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목포항 개발에 8493억원을 투입하는 포괄해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 중이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담긴 목포항은 조성과 철강, 자동차 등 배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상풍력단지 지원부두, 여객부두 등을 조성하는 등 항만기능을 다각화해 혁신적 항구로 개발된다.

이를 위해 신항에는 5만t급 자동차 전용부두 1선석을 추가 건설해 신항의 주력화물인 자동차를 연간 50만대 이상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이와 함께 신항에 서남해역 해상

풍력단지 지원을 위한 3만t급 철재부두 1선석을 신설하고, 배후단지 23만 8000㎡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신항에 해경 서부정비창을 건설해 경비정 수리시간 단축 및 조선업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예부선 전용부두 480m가 신설되고, 연안화물 처리를 위해 기존 석탄부두가 잡화부두로 기능이 전환된다.

아울러 대불산단에서 신항까지 약 1.7km 길이의 신항 대체진입도로가 새로 건설돼 신항에 진입하는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할 계획이다.

또 신항에 투기장 호안 520m를 추가 조성해 신항을 계속 확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목포항 내항에는 3만t급 여객부두

1선석(230m)을 신설해 여객서비스를 높이고, 해양관광 기반이 조성된다.

동명동 소형선 부두 4만㎡를 정비하고, 대반동 수제선(400m)을 정비해 친환경 명품 친수공간으로 조성, 해양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북항에는 목포수협 이전과 수산업 기능 강화에 대비해 소형선 부두 413m가 추가 조성된다.

북항의 원활한 물류유통을 위해선 현재 단일 진입입 도로에 추가로 제2 진입도로 910m가 마련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목포항은 향후 10년에 걸쳐 혁신적 현대적 항구로 개발된다"면서 "항만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산업 지원 및 서남권



경제 거점항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포=박정수 기자

신안군, 8.2GW 1단계 해상풍력 협의회 개최

지자체와 발전사업자 간 상호협력 다짐



신안군은 17일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종식 목포시장을 비롯한 한전과 발전사업자 대표 등이 참석해 신안지역 8.2GW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호 공동 협력 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신안지역

8.2GW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으로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전남형 상생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도 개선 건의, 지역 생산 부품 구매 및 주민 이익공유 등 지자체와 발전사업자 간 상호 협력을 다짐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은 현

재 해상풍력 고정식 8.2GW, 부유식 2.4GW, 태양광 1.8GW, 총 12.4GW, 원전 12기 규모로 추진중에 있으나 지리적 여건상 계통 연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부분은 그린수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한전에서 계통 연계 등을 고려한 그린수소 전환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오늘 협의회를 통해 본 사업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앞으로 정부, 지자체, 발전사, 제조업체 등 모든 주체와 긴밀한 상호 협력과 교류를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단일단지로는 세계 최대인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을 꼭 성공시켜 그린수소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수소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함평군, 친환경농업 생산장려금 전액 지원

함평군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지역농가에 '친환경농업 생산장려금' 전액을 지원한다.

18일 함평군에 따르면 생산장려금은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고 농가별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함평군이 매년 지원하는 자체사업이다.

군은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총 228억여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2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인증품목별로 생산장려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지역 농가로, 함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신청한 관내 필지 역시 올해 말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액은 인증면적기준으로 ha당 △과수 230만원(유기), 150만원(무농약), △채소 200만원(유기), 130만원(무농약) △특작 180만원(유기), 120만원(무농약), △식량작물 130만원(유기), 70만원(무농약), △벼 120만원(유기), 60만원(무농약), △임산물 100만원(유기), 50만원(무농약), △기타 70만원(유기), 40만원(무농약) 등이다.

생산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다음 달 11일까지 친환경 인증서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함평=김광훈 기자

무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혁신포럼 수료식

리더 33명 배출

무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단장 김명진)은 지난 13일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2020 무안상상 황토골 혁신포럼 수료식을 개최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촌지역의 특화자원과 민간자생조직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도조직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10월 20일부터 총 8회 혁신포럼을 실시했다.

포럼에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농업인 47명이 참여했으며, 교육이 저녁 늦은시간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3명이 수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참석자들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과 농촌 융복합산업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교육을 듣고 완주군 신활력플러스사업과 로컬푸드 견학을 실시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암군, 청소년어울림마당 '3대3 농구대회'

영암군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14일 농구를 좋아하는 청소년들의 에너지 발산을 위해 야외 농구코트에서 3대3 길거리농구대회 및 3점 슈팅슈터(FREE STYLE Y·A Youth)를 개최했다.

농구에 대한 열정으로 푹푹 땀을 흘린 중학교 청소년들이 3대3 농구의 재미를 흠뻑 만끽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은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일상의 스트레스와 무료함을 날려버리기에 충분했다.

청소년수련관 야외 농구장에서 3대3 경기와 3점 슈팅슈터 경기를 벌인 청소년들은 불꽃 튀기는 경기 속에서 각 팀의 승리보다는 화합과 우의를 다지며, 겨울의 문턱

의 들어선 쌀쌀한 날씨임에도 뜨겁게 열정을내뿜었다.

특히 농구동아리 친구들이 직접 경기 규칙을 정하고 심판도 보는 경기여서, 스스로 반칙을 줄이고 서로를 격려하며 정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어 더욱더 의미가 남달랐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참고로 수정·보완하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드는 멋진 대회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영광군, 장난감 아나바나 희망 나눔행사 연중추진

영광군은 영유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장난감 도서관에서 "장난감 아나바나 희망 나눔행사"를 연중 추진하고 있다.

장난감 아나바나 나눔행사는 우리 아이가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이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 육아용품 등의 기부를 통해 장난감 재순환과 함께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환경보호에도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기부물품은 개인용품(젓병, 아기용변기 등) 또는 파손된 용품(본인이 쓰기 어려운 용품)을 제외한 사용가능한 장난감 등이며,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영광군 장난감도서관에서는 기부받은 장난감, 육아용품을 철저히 소독하여 장난감이 필요한 가정에 제공하고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

함께해요!